

# 일본 속의 만주

한 석 정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망각이라는 생리적 기제가 서서히 귀중한 과거를 유실시키기 전에, 뒤늦게나마 나의 일본 체류 1년을 급히 기록해본다. 강의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여러 학자들을 만나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남북단을 여행할 수 있었던 이 시기는 모처럼의 재충전 기간였다. 자료 공급원의 면에서 일본은 사라진 제국 만주국으로의 항해를 위한 중요 기착지였다. 먼저 나를 초청한 연구소의 후의를 잊을 수 없다. 「한국의 개발국가에 미친 만주국의 영향」이라는 연구계획서가 채택되어 나는 2005년 1월초 일본 교토(京都) 소재의 국제일본문화센터(日文研. 니치분켄)의 외국인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 연구소는 전분야에 걸쳐 전세계의 학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주는 도쿄의 방대한 기관인 일본재단(Japan Foundation)과 달리, 문화연구에 국한된, 대학원과정을 갖춘, 소규모의 그러나 빼어난 교수들을 갖춘 국립연구기관이다. 내 전공이 문화연구와 거리가 멀었지만 어느 눈먼 이의 실수였나 보다. 세상에는 운이란 것이 있다.<sup>1)</sup>

도쿠가와막부 이전 약 천년간 일본의 중심은 칸사이지역(교토, 오사카 일원)이어서, 오늘날 일본에는 동, 서의 지역주의, 혹은 동, 서를 배려하는 2원적 지역체계가 있다. 예컨대, 문화방면에서 두 명문대학(도쿄대학과 교토대학)과 두 국회도서관이 동, 서지역에 양립한다. 198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시절 나카소네총리가 큰 예산을 들여 문화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을 때, 연구의 특성상, 그리고 도쿄의 일본재단에 대항하는 지역주의 등이 작용, 교토의 오에야마(大枝山)산록이 우선 후보지가 되었다. 1980년대 개원이래 한 해 약 10명 정도의 주로 인문계통의 외국인 학자들을 초청했다. 그간 한국인으로는 이어령, 강신표, 지명관교수 등 원로학자들이 다녀갔다. 나의 체류시에는 정재정, 윤상인교수 등 50대의 다소 젊은(?) 세대로 연령대가 내려왔다. 한일관계사와 일본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이분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중국, 타이완, 베트남, 영국, 프랑스, 헝가리, 이집트, 스웨덴, 독일, 이태리 등 10개국의 동료 외국인 학자들도 같이 지냈다.

외진 산중의 연구소는 일본식과 서양식을 섞어 공들여 지은, 유럽 중세의 수도원을 방불케하는 건축물였다. 건축양식이나,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지리적인 면에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수도원이라 불렀다. 가끔 건축미, 뒷산과의 조화, 여러 무대같은 정원, 희귀한 나무들에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 이 건축물 하나가 초청된 외국인들에게 일본문화의 멋을 선전하는 중요한 교재가 되었다. 초대 연구소장은 일본철학계의 거두 우메하라(梅原)인데, 개원 당시 유명학자는 물론이거니와 가려져 있던 인재들을 두루 찾아다녔다고 한다. 예컨대, 일본의 건축물과 성육과의 관계를 규명한,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외면당했던 신에 건축학자를 발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과 비공식적 인재 발굴의 전통

이 공존하는 듯했다. 이곳은 속세와 동떨어진, 철학, 문학, 미학, 문명교류사, 생태학, 의학사, 경제사, 사회사, 음악사 등을 파헤치는 심오한 인문학의 세계였다.

연구소의 정치적 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었으나, 더러 좌파도 존재했다. 그러나 연구소의 명칭답게 매우 국제화된 기관이었다. 연구소는 일본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이집트학자도 초청하고,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들을 갖추고, 외국인들도 전임교수로 채용하며, 국제학회를 빈번하게 개최하는 등 연구의 국제화에 진력했다. 후한 연구비, 산록의 숙소시설, 부설 도서관의 신속한 자료 구입 등 연구지원이 펴 인상적이었다. 만주에 관한 자료야 교토대학의 인문연구소 등의 기관을 따라갈 수 없지만, 중요 자료들은 많았다. 만주국의 1940년 센서스 자료와 만주국시대에 만들어진 수십 편의 기록, 극영화 필름(남만주철도회사나 만주영화회사 등이 제작하고, 종전후 소련군이 포획한) 등이 큰 소득이었다. 나는 밤마다 이 영화들을 보았고, 제국주의 영화의 절편인 『지나(支那)의 밤』에 나오는 주인공 리코랑(李香蘭)의 노래에 빠져 들었다. 연구소는 강한 학제적 연구의 전통과 수많은 공동연구회가 있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각종 세미나가 열렸다. 초대 소장의 해안, 소수정예, 학문적 고집, 상당한 연구지원 등이 만주국 협화회출신의 이데올로그 이선근이 초대소장으로 있었던, 화랑과 호국의 국가이념을 만든 한국의 정신문화원의 초기 역사와 비교되어 부러웠다.

나의 연구 파트너는 료우지엔웨이(劉健輝)라는 중국계학자로 만주문학 전공자였다. 만주 창춘(長春) 출신인 그는 수년전 중국, 일본의 학자들을 모아 만주연구를 수행한 만주문학통이다. 그와 만주학회장 출신인 나의 만남은 거창하게 말해서 만주연구의 국제화의 계기였다. 일본어가 서툰 나는 그와 일본어, 중국어, 영어 3개국어로 통화했는데, 우리의 소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재빨리 문학을 넘어 전방위로 교제범위를 넓혔다. 나에게 한국학계, 특히 만주학회의 외교관이 라는 사명감이 가득했다. 한류 덕분에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호의적이었다. 나는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윤사마(영화배우 배용준)를 빌어 “한사마”로 자처했다. 근래 출간된 영어논문 둘을 만나는 이들에게 뿌려대었는데, 그 덕분에인지 6차례에 걸쳐 연구소 내외에서 발표회를 가졌고,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영문잡지 『Japan Review』의 편집고문단의 일원이 되었다.

먼저 우연히 세계화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연구소 안의 다소 회귀한 사회과학자인 소노다(園田. 사회학), 이노키(猪木. 경제사)교수 등을 만나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다. 이들은 아주 개방적이고 소탈한 60세 전후의 노인(?)들로서, 우리는 세계화뿐 아니라, 동서의 문화와 정치, 일본제국주의, 음악 등 온갖 토픽에 관해 이따끔씩 이야기했다. 소노다교수는 아주 싱거운 분이라 우리의 대화는 거의 농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술자리에서 밤샘을 하는 원칙이 있어, 체력안배에 조심해야 했다(그런데 이 글을 달고하던 날 그의 부음을 들었다. 아까운 벼를 잃어 못내 아쉽다. 그의 명복을 빈다). 이 분들은 나를 홍콩과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화관련 학회에 초대해주어, 재차 외국 구경의 기회를 주었다. 어느 세미나에서 내가 영어로 떠드니, 누군가가 일본어로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여기가 국제연구센터이니 영어로 할 수 있다고 응수,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소노다교수는 지난 1월에 부산에 오는 길에 작년 연말을 겨냥하고 출판한 『망년회』라는 책을 선물로 갖고 왔는데, 일본어로 된 책이라 읽을 수 있느냐는 농담을 던졌다.

나의 체류중에는 1980년대말 교토대학의 인문연구소에서 야마모토교수가 이끈 만주국연구회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어, 대신 한국, 중국현대사를 전공하는 마쓰다(松田), 교토대학의 미즈노(水野),

코마고메(駒込)교수 등의 세미나에 거의 정기적으로 참가했고, 이분들의 신세를 많이 졌다. 언젠가 한번은 미즈노교수를 따라 도지사(同志社)대학에 다닌 윤동주, 교토에 징병독려차 온 이광수, 조선인들의 절 등 조선의 흔적을 찾아다녔다(『역사비평』(2006년 겨울)에 실린 정재정교수의 훌륭한 글을 참조할 것). 그리고 인근 릿쓰메이칸(立命館)대학에 있는 인권스타 서승교수가 활동을 벌일 때마다 나를 불렀다(이분의 초청에 불응하면 관계가 악화되니, 유념할 것). 세미나에서 만난 대부분의 일본학자들은 동아대교수요, (전직) 만주학회장이라는 문구가 박힌 내 명함을 보고 아연했다. “동아,” “만주”등 일본에서 사라진, 금기품목같은 제국주의 관련 어휘를 내가 두 개씩이나 갖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 만주학회원들은 이런 명칭을 두고 과거에 심각한 논의를 거쳤다. 만주는 20세기초 일본제국주의 침식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문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가 일본의 영도를 가정한 동아시아의 단결을 외칠 때를 제외하면, 동양의 평화는 우리의 지향점이다. 어느 학회에서 만난,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의<sup>1)</sup> 저자인 경제사가 스기하라 카오루교수(杉原 薫, 오사카대학)가 나직하게 전했다. 아마도 만주를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일 것이라고. 나도 동의했다. 향수와 죄의식을 지닌 일본인들과, 피해의식으로 가득찬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측은 한국인일 것이다. 그리고 타나카 류이치(田中隆一)선생을 제외하면 만주연구의 맥도 끊긴 듯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축적과 사회적 관심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엄청난 자료와 독자층, 그리고 야마모토 유조(山本有造),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니시무라 시게오(西村重雄) 등 중량급 학자들이 있다. 특히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의 저자 야마무로교수(교토대, 2004년 12월 동아대에서 열린 만주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는 성실함과 타고난 재능으로 여러 역작을 저술한 ‘Mr. 만주국’으로 여겨지는 학계의 스타였다.

나를 교토 밖으로 처음 불러낸 측은 도쿄의 국제기독교대학이었다. 동아대에서 열린 만주학회에 왔던 개번 맥코맥(Gavan McCormack)교수는 당시 호주국립대와 일본의 국제기독교대학 두 군데에 적을 두고 있었다. 그는 Japan Focus라는 유명한 진보성향의 인터넷잡지를 편집하며 세계를 누비는 정력적인 노학자였는데, 2월달에 만주국의 현대적 의미에 관해 강연을 부탁했다. 그런데 나는 교토 역에서 도쿄행 신칸센 열차를 타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만주국시대로 돌아가는 듯했다. 일본 열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고속철도 신칸센은 일본의 자랑이다. 아주 비싼 가격임에도 15분 간격으로 출발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승객들은 한국 KTX보다 넓고 안락한 좌석에서 각지의 특산 도시락을 들며, 후지산 등 바깥 경치를 감상한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열차(슈퍼 익스프레스)인 노조미(望み)와 히카리(光)는 1930년대 부산을 출발, 만주국의 중심도시 핑티엔(奉天, 오늘날 선양沈陽)과 수도 신징(新京, 오늘날 창춘)까지 달리던 특급열차들의 이름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부산을 기점으로 해양, 상공, 철도에서 해마다 수송속도를 갱신, 일본과 조선, 만주를 빠르게 묶었다. 히카리와 노조미는 1933, 1934년 선보인 특급들이었다. 1933년말에는 관부 연락선에서 내린 일본 승객들이 부두에서 바로 승차하는 만주행 특급도 생겼다.<sup>2)</sup> 당시 일본의 고

1) 박기주, 안병직 역,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선통과 현대, 2002).

2) 줄고,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부산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37(5)(2003), 그리고 일본인들의 만주 여행, 특히 만주사변 이전의 것에 관해서 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근대 일본의 만주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 23(2006)

관, 사업가, 문인들, 이태준 등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들을 타고 만주로 갔다. 신칸센 노조미, 히카리에서 잠재한 만주에 대한 향수를 읽을 수 있으나,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런 역사를 모른다. 노조미를 타고 도쿄로 가면서 젊은 시절 연령 제한을 뚫으려,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당시 일본 청소년들에게 유행)를 써올려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했던 박정희전대통령이 졸업후 일본육사로 진학하기 위해 도쿄로 갔던 코스가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당시 초대형 연락선 콘고마루(金剛丸)나 코안마루(興安丸)를 타고 왔을까? 그 뒤는 어떻게 갔을까? 어쨌든 60여년의 시차를 두고 두 만추리언(Manchurian)이 도쿄로 올라갔다.

도쿄에서 발표 당일 새벽 네시에 팽하던 소음으로 잠을 깬는데, 목던 호텔방이 흔들거리는 것을 직접 느꼈다. 진도 4정도의 지진이 내가 제국의 수도로 온 것을 환영한 것이다. 국제기독교대의 강연에서 어느 미국인 학생이 한국에 미친 만주국의 영향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어려운 질문이었다. 역사의 연속성이 어찌고 하며 우물대었지만 교토로 돌아오는 길에 내도록 그 질문을 씌었다. “만주국군 장교출신이 한국의 빈곤을 퇴치시켰다네, 그래서 제국을 찬양할 것인가?” 역사의 전개와 해석은 어렵다.

곧이어 나는 서승교수 등 인권운동가들이 조직한 오키나와(1945), 타이완(1947), 제주도(1948) 등 1940년대에 벌어진 학살 규명운동 워싱턴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갔다. 근래 여러 나라의 운동가들이 이 과거를 추적, 이것을 공식 역사로 진입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서울과 도쿄에서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학술회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키나와에서 반갑게 합류한 임성모, 신주백선생 등과 함께 노마 필드의 책에 나오는 오키나와 운동가 치바나 쇼이치<sup>3)</sup>의 안내로 오키나와인들의 집단 학살지 (혹은 자살을 강요받은 곳) 치리비리, 생지옥같은 남쪽 지하터널, 미군기지 등을 살펴보았다. 태평양전쟁 막바지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결전장으로 지정된 오키나와에서 1945년 4월에서 9월까지 미국, 일본 양측의 전사자가 23만명(일본측은 16만명)이 났는데, 그 중에서 오키나와 민간인 9만명이 희생되었다. 2차대전 이래 미군기지가 된 오키나와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일전쟁 이전 관동군에 의해 건설된 만주국과 베트남전쟁 이전시기까지 미군정에 의해 구축된 오키나와는 각각 소련과 중국에 대한 반공의 거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양자는 치안공작, 총력전체제, 매커시즘, 괴뢰국, 잠재주권, 혹은 준국가 등의 연속선상에 있었다.<sup>4)</sup> 오키나와인들은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었다. 문학속의 오키나와인, 특히 여성들은 도회지나 고향에서 부적응자, 창녀로 묘사된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조각가 킨초 미노루의 작품은 주로 강탈을 비유한 벗은 여성의 부조(浮彫)였다. 그와 재일동포는 모두 형제였다.

우리 일행은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관도 둘러보았다. 이곳은 언덕 위 일본군 사령관 우시지마의 자결터는 “여명의 언덕”이라 명명되어 있고, 전투에 희생된 일본 군인들의 묘소가 출신 고향별로 진열된 사실상 전쟁기념관이었다. 여기에서 평화의 의미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패전으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단면이다. 가해의 역사와 오늘날 일본의 재무장에는 둔감한 채, 수많은 이들

참조.

3) 그는 시민 불복종의 표시로 오키나와에서 열린 일본전국체육대회에서 일장기를 태웠다. Norma Field,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Japan at Century's End* (N.Y.: Vintage, 1993), ch. 1 참조.

4) 임성모, 「제국의 그늘: 만주국, 오키나와 비교 서설」, 『동아시아』 1(2003), pp. 137-38.

이 참배하고, “평화”를 기구한다.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그것은 폭력의 반대가 아니라, 기실 폭력과 평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이다. 청일전쟁을 신속히 지원한 일본불교나,<sup>5)</sup> 로마의 성세(盛世), 영국의 태평성대(Pax Romana, Pax Britannica)에서 평화가 그런 뜻이다.

도쿄를 몇 번 다닌 뒤,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 여름날 드디어 북쪽의 홋카이도로 향했다. 찌는 듯한 교토를 떠나 계획도시인 만주국 수도 신징의 모텔인 삿삿로로 올라갔다. 도처에 나타나는 긴 해안선, 드문 인적 등 일본은 작은 섬나라가 아니고, 남북과 동서로 길게 이어진 대륙같은 곳이었다. 좁고 갈 곳 없는 한국의 휴양지는 뻥하다. 매년 백만명의 피서객이 백사장을 오염시켜 부산의 해운대는 몸살을 앓는다. 밤차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통일 뒤, 북한과 저 만주까지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으로 일본의 여행은 간혹 씩씩하다. 도쿄에서 야간 침대열차를 타고 밤새워 달려 어디선가 기차를 갈아타는데 북국의 한기가 엄습했다. 여름이라고 가볍게 반바지 차림으로 홋카이도 여행길에 오르다간 낭패를 당한다. 새벽녘 침대차의 차창에 비쳐진 원시림같은 숲과 광활한 들판 등 홋카이도의 대자연은 일본 본토와 완전히 다른 신천지였다. 과연 삿삿로는 자를 쟈 듯한 계획도시였다. 날씨, 풍물, 큼직큼직한 도시구획 등이 일본 본토와 확연히 다른, 마치 캐나다로 온 듯한 착각이 있었다. 시내의 이곳저곳, 라면골목, 교장으로 온 미국인 클락이 “Boys, be ambitious!”라는 명언을 남겼던 삿삿로농학교(오늘날 홋카이도대학) 등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계를 마음껏 먹는 식당으로 갔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근대국가가 들어서면서 개척·척식(拓植), 정착, 정복, 식민화와 연속선상에 있는 말의 대상이 되었다. 삿삿로는 미국 농업경영을 모델로 성장한 도시였는데, 도시계획의 면에서 만주의 신징 등 일본제국의 신도시 형성의 원점이 되었다.<sup>6)</sup>

그 여름에 일본계 미국교수 마리코 타마노이(UCLA대학)가 고국 방문 길에 갓 발간된, 자신이 편집한 책, *Crossed Histories: Manchuria in the Age of Empire*(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의 일본어 번역판 사업의 의논 등으로 연구소로 찾아왔다. 이것은 Rana Mitter, Thomas Hausen 등 쟁쟁한 영미권학자들이 만주에 관해 기고한 글들을 모은 책인데, 나도 글 한 편을 실었다. 일본어판은 올해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는 수년전 미국의 동양학회에서 만주에 관한 패널을 조직, 같이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타마노이교수의 고향이 교토다. 그녀는 이듬해 육사에서 열린 만주학회에서 좋은 글을 발표해주었고, 계속 만주학회와 교분을 맺기로 했다. 그리고 만주학회원인가와무라 미나토교수(川村 湊. 호세이대학)가 주최하는 도쿄의 만주이민 관련 학회에 가서 우리 멤버들인 윤휘탁, 김재용선생과 반갑게 해후했다. 이런 만주관련 학회에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운 것을 보았다. 타니가와, 미야가와, 허수동선생 등 만주를 전공하는 일본의 청년학자들과도 여러 번 회동했다.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엔 조선족학자 허수동선생이 안내, 조선족이 경영하는 보신탕집엘 간 적이 있다. 한국에서 먹던 것과 무언가 다른 맛이 있었다. 도쿄에 흘러온 수만명의 조선족, 그리

5) 톨스토이(Tolstoi)의 반전(反戰) 수필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불교 지도자인 사쿠 소엔은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는 부처가 비록 살생 금지를 가르치지만, 또한 무한한 동정을 통해 만물이 합쳐지고, 그것을 통해 최후의 궁극적 평화를 얻는다는 것도 가르친다고 했다. 서로 양립되지 않은 것들의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살생과 전쟁은 필요하다고 했다. James Katelaar, *Of Heretics and Martyrs in Meiji Japan: Buddhism and Its Persec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71.

6) 梅棹忠夫 編, 『日本文名77の鍵』(文藝春秋: 2005), p. 167-68.

고 조선족 스타일의 보신탕이라, 만주의 그림자는 길다. 일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주학회 가입을 권유했는데, 이제 소규모지만 신규섭선생이 이끄는 만주학회 일본 지부도 생겼다.

교토는 수천개의 절과 뛰어난 명소들을 지닌 천년의 고도요 문화수도이다. 그래서 한해 수백만명이 찾는다. 한국과 가까우니 간혹 한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교토와 인근 나라(奈良), 오사카를 구경시켰다. 여유가 있을 때엔 도쿄 황궁을 출발, 나고야의 메이지무라(明治村. 메이지시대의 거리를 재구성한 단지)를 거쳐 왼쪽 투하지인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여정을 잡았다. 현대사기행이라 이름붙인, 즉 천황제와 메이지국가의 시작에서 그 종국까지의 길이였다. 교토는 분지라서 여름에 무덥고, 겨울에 추운 곳이다. 여름에 돌아다니기 매우 힘들다(여름 교토 방문을 자제할 것). 이럴 때 산중의 연구소는 훌륭한 휴양지 구실을 한다. 꼼짝 않고 지낼 때 야마무로교수의 소개로 아사히신문의 기자가 찾아왔다.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인맥기(人脈記)”라는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그 중 일부가 “만주의 유산”이라는 칼럼였다(이것은 『日本人脈記』 라는 제목으로 2006년에 출판되었다). 나는 한 달에 한 편 정도만 글을 쓴다는 사실상 작가같은 여기자와 더불어 만주와 한국과의 관계를 몇 시간이나 떠들었다.

전전 일본군부에 협력했다가 전후 참회로 새로 태어났다는 아사히신문은 오늘날 일본사회의 우경화로 힘든 날을 맞고 있다. 아베 현총리가 수년전 아사히와 공방전을 벌이고, 천황제 비판 기사에 불만을 품은 테러분자들이 아사히편집장에게 총을 쏜 적이 있다. 그 뒤 논조는 약해지고, 보수 인사들에 지면이 많이 할애되었다. 아사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일본 최고 명문지의 현실이다. 화기에애하게 긴 회견을 마치고, 아사히의 자유정신을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헤어졌는데, 신문에는 불과 세줄만 났다. 대신 한국의 전형적인 만주인맥에 속하는 만주국의 지엔구오(建國)대학 출신 강영훈 전총리의 회견이 그의 큰 사진과 함께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아사히와 여기자를 조심할 것).

가을에는 학회 참가 전수가 쇠도했다. 니치분켄과 홍콩중문대학이 공동주최한 세계화 관련 학회에 참가, “동아시아의 초기 세계화: 부산과 평티엔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온 학자들과 나흘간 세계화에 관해 논의하고 지냈다. 나는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 특히 만주의 흡수가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에 미친 국제화를 역설했는데, 홍콩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은 과거보다는 오늘날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 특히 한류(韓流), 한국어 공부, 장동건, 이병헌 등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우리 일행은 홍콩과 이웃한 경제특구 셴첸(深圳), 마카오를 둘러보았다. 셴첸에는 인근농촌에서 흡수된 싸구려 노동력을 고용한 대형 마사지 공장에서 중국자본주의의 단면을, 마카오에서는 퇴락한 포르투갈의 제국주의를 보았다. 늘 나의 관심은 아름다운 인문학의 세계가 아닌, 제국주의와 파워 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곧이어 한국의외대에서 열린 한국일어일문학회가 주최한 학회에 참가, “하이 모던(high modern) 국가의 확산: 만주국에서 한국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문학을 전공하는 일본계 미국교수 찰스 이노우에와 늘 그렇듯 임성모교수의 훌륭한 비평이 있었다. 그리고 만주를 전공한 신예학자 전성곤선생을 만난 것이 큰 수확이었다. 11월 니치분켄의 이브닝 세미나, 12월 이노키교수의 공동연구회(“전간기戰間期 일본 사회집단의 상호관계와 네트워크”), 큐슈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이듬해 2월 하와이의 세계화 학회에서 같은 글을 발표, 계속 질정을 받고 다듬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아직도 미완성 상태에 있다. 큐슈의 학회에서는 절친한 은사 듀아라(Duara)교수(시카고대학), 중국인 부인을 둔 키시(貴志)교수(가나가와대학)와 함께 참가, 며칠간 큐슈 일대의 항구와 박물관, 마쭈(媽祖. 중국 남부, 타이완 등지에 퍼져있는 안전한 항해를 주관하는 여신)를 모신 중국 사원 등을 구경했다.

그리고 슬픈 나가사키였다. 원래 원폭의 투하 대상지는 고쿠라(小倉)였으나, 당일 그곳의 일기가 불순, (늘 구름이 끼었으나 하필 당일 날이 갠) 나가사키로 결정되었다. 또한 나가사키는 미국인 편 커튼대령을 하염없이 사모, 언덕위에서 항구 초입에 들어오는 배들을 늘 기다리다 어떤 갠 날 기혼자의 몸으로 도착한 그를 맞고, 아들을 딸려 보낸 뒤 자살하는 나비부인의 무대다. 그리고 개국 시기에 수십여명의 기독교인들의 순교지였다. 인근 시마무라는 17세기 기독교도의 반란과 막부군의 초토화 진압작전으로 3만명이 떼죽음 당한 곳이다. 우리 3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섞어 통화하면서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줄곧 만주에 관한 공동연구를 모색했다. 키시교수는 매우 귀한, 만주국의 포스타를 통한 선전,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언젠가 한국에서의 발표를 고대하고 있다. 후쿠오카에서 키시교수를 통해 나가이 리사 등 만주, 몽고에 관심을 갖는 젊은 학자들과도 인사를 했다. 키시교수는 만주국황제 푸이의 동생 푸지에(溥傑)의 일본인 부인(만주국 패망후남편과 생이별을 한 뒤 고향에 돌아와 죽었던)을 위한 사당이 큐슈의 어느 곳에 있다고 했다. 일정상 그곳 방문은 불발로 끝났다. 듀아라교수가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나를 그의 벗인 니시무라교수에게 소개시키려 했는데, 와병중이라 그것도 불발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야마모토, 야마무로, 타나카선생 등 만주연구가들이 교토의 게이샤의 거리 기온에서 송별회를 해주었다. 말고기 육회 맛도 보았다. 일본 체류는 그것이 끝인 듯 했는데, 칸사이 일본경제사학회에서 야마모토교수의 역작, 『滿洲國經濟史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 2003)에 대한 논평을 부탁, 귀국을 학회 이후로 연기했다. 학회(2006년 1월 7일)를 마치고 야마모토교수는 논평자인 야스토미 아유무교수((安富 步. 도쿄대)와 나에게 오사카 역 근처에서 저녁을 샀다. 술자리가 파한 후 출출해서 부근의 어느 라면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식당 이름이 신교(만주국 수도 신징(新京)의 일본어 발음)였다. 주인 영감이 어릴 때 그곳에서 살다 왔다고 한다. 만주의 흔적은 이렇게 길었다.